배·벼농사 비 피해 크다

일조량 부족 과일 당도 떨어져
벼 흑명나방·이삭도열병 확산

최근 잦은 비로 일조량이 부족해 과일 당도가 떨어지고 병충해 발생이 늘면서 수확기를 앞두고 농가 소득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5일 나주지역 농민들에 따르면 벼 수확을 앞두고 최근 연이어 내린 비로 인해 습도가 높아져 출수 이후에 나타나는 흑명나방과 이삭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 등이 급속히 번지고 있다.

조·중생종 벼의 경우 일조량이 부족해 씨알이 제대로 여물지 않는 등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

특히 나주지역 특산품인 배의 경우 지난 달 20일 이후 일조량이 예년의 20~30%에 불과해 과일 당도가 떨어지고 있다.

농민 장영배(58·나주시 금천면)씨는 "배의 당도가 지난달 말 12브릭스(Bx=당도 단위)에서 10브릭스로 2브릭스 가량 떨어져 상품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나주 배는 1브릭스만 떨어져도 맛에서 소비자들이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어 20%가량의 농가소득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나주배 농협 신현담 전무는 "배 수확량이 좋은 반면 당도가 떨어져 가격이 폭락할 조짐이 있다" 며 "향후 10여 일간 일조량이 좋으면 당도가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전남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비가 그치면 적극적인 병해충 방제에 나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며 "벼 뿌리기능이 약해지지 않도록 물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고 말했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中 심양 언론인·여행사 직원
함평 나비엑스포 현장 방문

중국 심양지역 언론인과 여행업체 관계자들이 지난 3일 팸투어(Fam-Tour)로 '2008 함평 세계나비·곤충엑스포' 현장을 방문했다. 〈사진〉

전남개발공사와 중국 요녕성 청년여행사, 요녕 대한경제기술문화교류센터가 주최한 이날 팸 투어에는 심양지역 언론인 25명과 여행업체 관계자 등 29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공사 중인 엑스포 현장을 둘러보고 사무국 관계자로부터 현황을 청취했다.

또 자연생태공원(Eco Park)을 방문, 문화관광 해설가의 안내로 나비·곤충 애벌레 생태관, 반달가슴곰 관찰원, 장수풍뎅이 애벌레 체험학습장 등을 둘러봤다.

루오루시앙 형양방송국 부국장은 "직접 와서 준비과정 등을 보니 그 규모와 시설이 매우 큰 데 놀랐다" 고 말했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녹동 신항 여객선터미널 신축"

2009년까지 65억 들여 도양읍 일대 3만4천㎡에

오는 2009년까지 고흥 녹동 신항에 여객선터미널이 신축된다.

녹동 신항 여객선 터미널은 도양읍 봉암리 3907번지 일대에 부지 3만4천431㎡, 연건평 2천473㎡의 2층 건물로 6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여수지방 해양수산청은 녹동 신항 여객선 터미널에 대한 현상공모를 실시해 최근 '미가온' 건축사사무소의 설계 계획안〈조감도〉을 당선작으로 최종 선정했다.

출항하는 여객선 모양을 형상화한 신축 터미널은 전면을 모두 유리로 설계, 터미널 안에서도 바다를 조망할 수 있다.

또 개별 사무실을 운영했던 여객선사나 화물선사도 터미널 부속 건물로 모두 흡수, 이용객 편의 증대와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터미널이 신축되면 제주와 여수 거문도, 완도 금당 등 5개 노선 7척의 여객선 입출항이 한곳에서 이뤄져 이용객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녹동항은 매년 이용객이 20% 이상 급증, 지난해 제주 노선 30만 명을 비롯해 모두 37만여 명이 이용했다.

/고흥=주각중기자 gjju@

남양유업 나주공장 신축 공정률 70%

남양유업 나주공장 신축 공사가 한창이다. 총 사업비 720억원을 들여 지난 2005년 4월 나주시 금천면 일대 9만3천여 ㎡ 부지에 착공한 남양유업 나주공장은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내년 2월부터 이 공장이 가동되면 하루 120t의 원유를 처리하게 되며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나주=정칠현기자 chjung@

왕인박사 인물재현 체험프로그램 마련

영암군이 이달부터 연말까지 왕인박사 유적지에서 매주 토, 일요일 오후 3시부터 1시간 동안 왕인박사 인물재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1천600년 전 왕인박사가 일본에 가는 장면을 꾸민 '왕인박사 일본가오!'와 매직 마술쇼, 백제의상 체험, 왕인학당 체험 등으로 진행된다.

2005년부터 3년 연속 전남도 집중지원 참여 체험 프로그램에 선정된 왕인박사 체험여행은 도기 제작, 인공암벽 등반 등 관광 프로그램과 연계해 운영된다.

/영암=김한남기자 hnkim@

전국 과학탐구 대회 로켓과학분야 은메달

순천 송광초 장영송군

전교생 64명의 작은 시골학교 학생이 전국 과학탐구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순천 송광 초등학교(교장 김기화) 6학년 장영송군〈사진〉은 지난 7월 28·29일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열린 '2007 전국청소년과학탐구대회' 로켓과학분야에 전남도 대표로 출전해 영예의 은메달을 차지했다.

전국 청소년 과학탐구대회는 로켓과학, 탐구토론 등 7개 종목 16개 부분에 예선을 통과한 전국 640여 명의 학생들이 출전하는 국내 최대의 과학부문 종합경진대회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진도 하수종말처리장 '애물단지'

비만 오면 오·폐수 인근 주택까지 흘러
주민들 "악취 고통" 주장 대책 마련 호소

진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오·폐수가 역류해 인근 주민들이 심한 악취에 시달리고 있다.

진도군 진도읍 고장리 주민들은 "최근 비가 계속 내리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흘러가야 할 오·폐수가 집 안으로 역류, 심한 악취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각 가정에서 하수처리장 펌프장으로 들어가는 하수관은 300㎜인데 비해 펌프장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1.5㎞의 관은 80㎜로 훨씬 작아 비가 조금만 내려도 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고 오히려 역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민들은 "비가 많이 올 경우 정화되지 않은 오·폐수를 양수기로 진도천으로 방류해 하천 오염도 심각하다"면서 "부실 공사가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진도 하수종말처리장은 하루 4천t 처리 용량으로 21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지난 2003년 4월 준공됐다.

진도군은 주민들의 민원 제기에 따라 오·폐수 역류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대불산단에 한-핀란드 합작 대규모 선박엔진공장 짓는다

'바르질라 현대 선박엔진공장' 기공식

영암 대불산단에 한국과 핀란드 기업이 합작한 대규모 선박 엔진공장이 들어선다.

전남도와 영암군은 5일 영암군 삼호읍 호텔현대에서 박준영 전남지사와 김일태 영암군수, 최길선 현대중공업 사장, 핀란드의 바르질라사(社) 에릭 페터슨(Erik Pettersson) 부사장 등 국내외 관련 인사와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바르질라 현대 선박 엔진공장' 기공식을 가졌다. '바르질라 현대 선박 엔진공장'은 대불산단 내 6만2천㎡의 부지에 들어서며, 현대중공업과 핀란드 바르질라사가 679억 원의 사업비를 절반씩 나누어 투자했다. 오는 2008년 8월 공장 가동이 시작되면 전자제어시스템을 갖춘 'LNG 선박용 고출력 대형 중속엔진'을 연간 120대씩 생산, 국내외에 공급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이 엔진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500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연간 3천억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합작공장은 서남권 조선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선도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LNG 선박용 엔진 시장에서 고지를 선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

프랑스 도자기 강진서 전시

프랑스 유명 도예작가 부자(父子)의 작품이 강진에 온다.

오는 8일부터 9일간 개최되는 제12회 청자문화제 기간동안 도예문화원 특별전시실에서 프랑스 도예작가인 쟝자크 폴롱죠(1917~1994) 부자의 작품 32점이 전시된다.

이들 작품들은 유럽전통 기법으로 제작돼 미적 감각과 세련미를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